



I 이달의 소식

1. 모임안내

1쪽

II 내용

1. 지적설계 (1) 서문 - 발표 김경찬, 정리 이종헌

2쪽

2. The BIBLE COMES ALIVE (16) by Clifford Wilson - 이종헌 역

6쪽

3. IMPACT (4) 낙원의 용 - 이종헌 감수

10쪽

4. 창조단상 (17) 계란 소고 - 박종환

14쪽

인 사 말

벚꽃이 만개했고, 그 나무들 사이에 꽃이 아직 남아 있는 몇 그루의 목련이 돋보이며, 개나리가 장식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치 4월의 문턱에서 자연이 뿜내려는 화려함을 시기하는 듯이 비가 옵니다. 이 비는 그동안 메말랐던 땅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는 좋은 의미의 물이겠지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악한 일의 배후에 반드시 사탄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탄은 우리를 흔들려 놓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며, 그동안 혹시 우리 영혼의 잠자던 부분이 있었다면 깨어납시다. 할렐루야!



- 창조과학회 대구지부장 이 종헌 올림

1. 정기모임 안내

창조과학회 대구지부에서는 매월 정기 스터디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과학 자료를 발굴하고,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보다 전문성 있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며, 상호교제를 통해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모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시: 2004년 4월 22일 목요일 오후 7시 (다음 모임은 5월 6일 목요일)

장소: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사무실 (동일교회 세계복음센터 103호)

내용: “지적 설계(Intelligent Design)” 4장 (5월 6일(목)에는 “지적 설계(Intelligent Design)” 5장)

발표: 이종헌 (지적설계 5장 발표: 전창진)

약도: 문의전화 (053)743-6058





서문(Preface)

• 지적설계(Intelligent Design)의 세 가지 측면

- 1) 지적 원인의 결과들을 탐구하는 과학적 연구 프로그램
- 2) 다윈주의와 그 자연주의적 유산에 도전하는 지적인 운동
- 3) 신적 활동을 이해하는 한 방법이다.

• 지적설계는 과학과 신학을 넘나들지만, 과학과 신학 모두에게 필요한 바로 그것이다.

• 창조론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 하는 것이고, 지적 설계는 과학적으로 하다보니 하나님이 증거 되는 것으로, 지적 설계는 위장된 창조론이 아니다.

초점 : 우주 안에서 설계를 탐지하기

(The Focus : Detecting Design in the Universe)

• 설계의 탐지

• 이 책은 설계를 다룰 때, 우주가 설계되었느냐 아니냐 하는 것보다, 이미 주어진 우주 안에서 우리가 설계를 탐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우주는 잘 정의된 인과 관계적 배경(causal backdrop)을 제공한다. [요즘의 물리학자들은 장방정식(field equation)에 의해 기술되는 장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이론에서 시작된 장방정식은 우주의 모든 법칙을 하나로 통일하려는 것으로, 예를 들면 공간상의 한 좌표를 직교좌표를 사용하면 (x, y) 이나, 극좌표(polar coordinates)를 쓰면 (r, θ) 로 나타낼 수도 있다. 그렇다면, 같은 물리현상에 대해서 지구와 달 등에서 다르게 설명이 되게 되므로, 그것을 한 법칙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벡터(하나의 장으로 3차원에서는 그래디언트/gradient, 4차원에서는 달랑베르/D'lambert를 사용)를 이용한다. 요즘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 지적 설계 운동의 주요 대상

• 설계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1) 우주 전체의 설계와 2) 우주 안에 있는 설계의 예들이 그것이다. 그런데, 1)은 우리 영역 밖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이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2)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낫다.

• 설계는 우주론에서도 중요한 쟁점이지만, 지적설계 운동의 초점은 생물학에 맞춰져 있다.

• 지적 설계가 생물학에서 설계를 회복시키면 서구 문화에서 자연주의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목적 : 어떻게 설계가 자연주의를 몰아내는지 보여주는 것
(The Goal: Showing How Design Unseats Naturalism)

● **이 책의 목적**

- 1)이 책의 목적은 우주 안에서, 특히 생물학과 생화학의 배경에서 설계를 탐지함으로써, 어떻게 자연주의를 몰아낼 수 있는지 보여 주는 것이다.
- 2)자연주의의 제거를 위해 : 자연주의를 뒤집을 열쇠는 설계이다. 그것은 우주 전체의 설계만이 아니라, 우주 안, 특히 생물학 안에서의 설계이다. 우주 안에서의 설계를 탐지할 때 잘 정의된 방법론을 따르는데, 이 방법론을 마이클 베히의 ‘환원 불가능하게 복잡한 생화학적 시스템’에 적용시켰을 때, 그것은 설계를 설득력 있게 보여 준다.

개관 : 지적 설계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An Overview: Answering Questions About Intelligent Design)

● **이 책의 구성**

- 1)1-3장 : 용어설명과 설계에 대한 직관 및, 모더니즘이 어떻게 그 직관을 손상시켰는지 보여 준다.
- 2)4-6장 : 지적 설계의 철학적, 과학적 기반을 살펴본다. - 이 책의 중심
- 3)7-8장 : 결론으로서 어떻게 과학과 신학이 조화로운 관계에 있을 수 있으며, 어떻게 지적 설계가 그 둘 사이를 결정적으로 연결시켜 주는지 보여 준다.
- 4)부록 : 지적 설계에 대한 의혹들에 대해 답하고 있다.

장별 요약(A Chapter-by-Chapter Summary)

● **제1장 하나님의 손가락(Recognizing the Divine Finger)**

- 1)표적을 보고 의사 결정을 하는 성경의 예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러 갈지 결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표적을 구했다.) (요나가 여러 번 제비뽑기를 할 때 계속해서 뽑힘)
- 2)표적의 논리가 지적인 원인, 즉 설계를 탐지하는 방법에 기초를 제공한다. 지적인 원인(=설계)이 작용하고 나면 독특한 특징(=표적)이 남는다.

● **제2장 기적에 대한 비판(The Critique of Miracles)**

- 1)1650년과 1850년 사이, 스피노자(Spinoza)로부터 쉘라이어마허(Schleiermacher)에 이르는 기간에 기독교 신앙의 이성적 토대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표적에 대한 성경의 논리는 대개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생각되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초기 교회도 기적의 연속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엔 성령과의 교제 및 인도하심에 의존하지 않게 되면서 기적은 예수 시대로 끝났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신앙에 대한 특별히 강력한 증거로 생각되었던 기적은 이제 부조리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 2)기적에 반대하는 스피노자, 흄, 쉘라이어마허의 논증은 성립되지 않으며, 제2장은 그것을 반박한다.

• 제3장 영국 자연신학의 몰락(The Demise of British Natural Theology)

1) 제2장이 신학적인 측면에서 신적 활동에 대한 문을 다시 연다면, 제3장은 과학적인 측면에서 그 문을 다시 연다.

2) 영국 자연신학은 다윈 이전의 두 세기 동안 영국 과학자들이 신적 활동을 과학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한 시도였다. 그런데, 과학을 자연적 원인에 대한 연구로 국한시키는 실증주의적 과학관이 자연신학을 제거해 버렸다. 그런데 이 잘못된 과학관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는 것이 제3장의 목적이다.

3) 자연신학은 자연주의와 구분되며 설계라는 핵심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그 설계라는 핵심 개념은 여전히 쓸 만하다는 것을 논증한다.

• 제4장 자연주의와 그 치료(Naturalism and Its Cure)

1) 고대인들은 피조계를 통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는 논리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런데 기적에 대한 현대 신학의 비판과 자연 신학에 대한 현대 과학의 비판이 그 현대 이전의 논리를 무너뜨렸다.

2)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혜로 창조하신 것과, 따라서 하나님은 설계자이시며 세상은 설계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설계는 오직 믿음의 눈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다고 받아들인다. 제4장은 과학적인 연구로도 하나님의 설계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논증한다.

3) 제4장의 초점은 설계를 **경험적으로 탐지**할 수 있다는 것, 즉 관찰을 통해서 그것을 탐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제5장 설계를 과학 안으로 회복시키기(Reinstating Design Within Science)

1) 어떻게 설계를 경험적으로 탐지할 것인가? 제5장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설계를 탐지하려면 복잡성과 특정성이라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야 한다. **복잡성(complexity)**은 문제의 대상이 우연에 기인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보증한다. **특정성(specification)**은 그 대상이 지적인 원인과 연관될 수 있는 종류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증한다.

2) **특정된 복잡성(specified complexity)**이 바로 설계를 경험적으로 탐지하는 방법이다.

3) 제5장은 특정된 복잡성을 설명하고, 그것을 어떻게 마이클 베히의 환원 불가능하게 복잡한 생화학적 시스템에 적용되는지 보여준다. -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irreducible complexity)이란, 몇 개의 연결된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시스템에서 한 부분이라도 제거했을 때 그 시스템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가리킨다. 예로 쥐뿔의 지지대, 해머, 용수철, 걸쇠, 고정막대 중에서 어느 하나만 없어도 쥐뿔으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과 대조되는 누적적인 복잡성(cumulative complexity)은 어떤 시스템의 구성요소들이 연속적으로 나열되어 있어서 요소들을 하나씩 제거해도 기능이 완전히 소멸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예로 어떤 도시로부터 사람과 영역을 연속적으로 제거해서 작은 마을로 될 수 있어도 (기능을 의미하는) 공동체 개념은 없어지지 않는다.)

● 제6장 정보이론으로서의 지적 설계(Intelligent Design as a Theory of Information)

- 1)지적 설계는 종교적 신념이 배제된 경험적인 결과로 이루어진 과학 이론으로 공식화될 수 있다. 지적 설계는 정보 이론으로 풀어낼 수 있다.
- 2)제6장은 특정된 복잡성과 정보를 연결하면서 정보의 기원과 흐름에 대한 정보 보존법칙을 제시한다. 이 법칙으로부터 정보는 자연적인 원인들로 환원될 수 없으며, 정보의 기원은 지적인 원인에서 가장 잘 찾아진다는 내용이 나온다.
- 3)그래서 지적 설계는 정보를 탐지하고 측정하며 그 기원을 설명하고 그 흐름을 쫓는 - 우연한 것들의 흐름이 아닌 설계의 흐름을 쫓는 이론이다.

● 제7장 과학과 신학의 상호 지지(science and Theology in Mutual Support)

- 1)제7장의 목표는, 과학과 신학이 서로 다르고 수학적인 확실성을 가지고는 서로의 주장을 지지할 수는 없어도, 서로의 주장에 대해 인식적 지지(epistemic support)를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 2)제7장은 과학과 신학 사이에 정말 생산적인 학제간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적절한 인식적 지지라는 개념을 전개한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적 지지의 관계가 빅뱅과 신적인 창조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을 보인다.

● 제8장 창조 활동(The Act of Creation)

- 1)제8장은 신적 활동을 지적인 원인 작용(causation), 즉 설계를 이해하기 위한 렌즈로 취급한다.
- 2)유신론에서는 다른 모든 원인 작용이 신적 활동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실로 신적 활동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원인 작용이다.
- 3)따라서 지적 설계는 신적 작인과 인간적 작인을 모두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통합적 틀이 되며, 실재의 본성과 그것에 대한 우리의 지식에 대한 오래된 철학적 문제 몇 가지를 조명해 준다.

● 부록 : 설계에 대한 반대들(Objections to Design)

- 1)부록은 설계에 대한 주된 반대에 대한 대답이다.
- 2)추천 도서

- ① 비공통 후손 : 생물계의 지적 설계 - 윌리엄 템스키, 스티븐 마이어,
폴 넬슨 공저
- ② 다윈의 블랙박스 - 마이클 베히
- ③ 심판대 위의 다윈(Darwin on Trial) - 필립 존슨
- ④ 위기에 처한 이성 - 필립 존슨
- ⑤ 다윈주의 허물기 - 필립 존슨
- ⑥ 창조와 진화에 대한 세 가지 견해 - 모어랜드, 레이놀즈
- ⑦ 과학과 성경, 갈등인가 화해인가? - 찰스 함멜 **창조**



사해 바다 지역의 마른 땅에 대한 다른 관점

이 사진은 내가 찍은 것으로, 사해의 북쪽과 남쪽 부분 사이의 이 지역이 현저히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나는 같은 지역의 사진을 약 10년 전에 찍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 쪽 전 지역이 물로 덮였었다. 이 과정이 현재의 비율로 계속된다면, 오래지 않아 사해의 남쪽 지역 전부가 다시 거대한 계곡이 되기 쉬우며, 아브라함 시대와 마찬가지로 비옥해질 수도 있다.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단을 쌓고



이것은 불과 수년전의 사해의 일부이다. 싯딤(소돔) 계곡이 원래는 물로 덮여 있었는데, 지금은 아브라함 시대의 상태로 되돌아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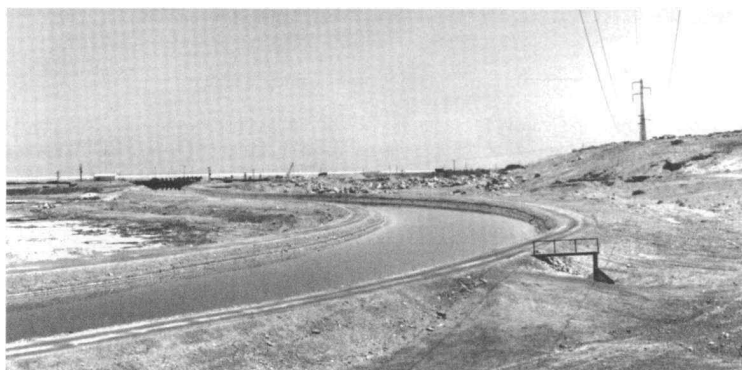
천막을 친 산지에서 그곳을 바라보았을 때, 그곳을 관개가 잘 된 곳으로 묘사했었다. (창 13:10)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에스겔 16:55는 흥미 있는 절이다.

『네 아우(sister) 소돔과 그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 너와 네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선지자 에스겔은 한때 거대한 계곡이었던 그 지역에 다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는 시기를 내다보았을 것이다. 아마도 다가올 사건들은 우리가 보듯이 물이 감소하는 방식으로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다.

필요한 운하



사해 화학회사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건설된 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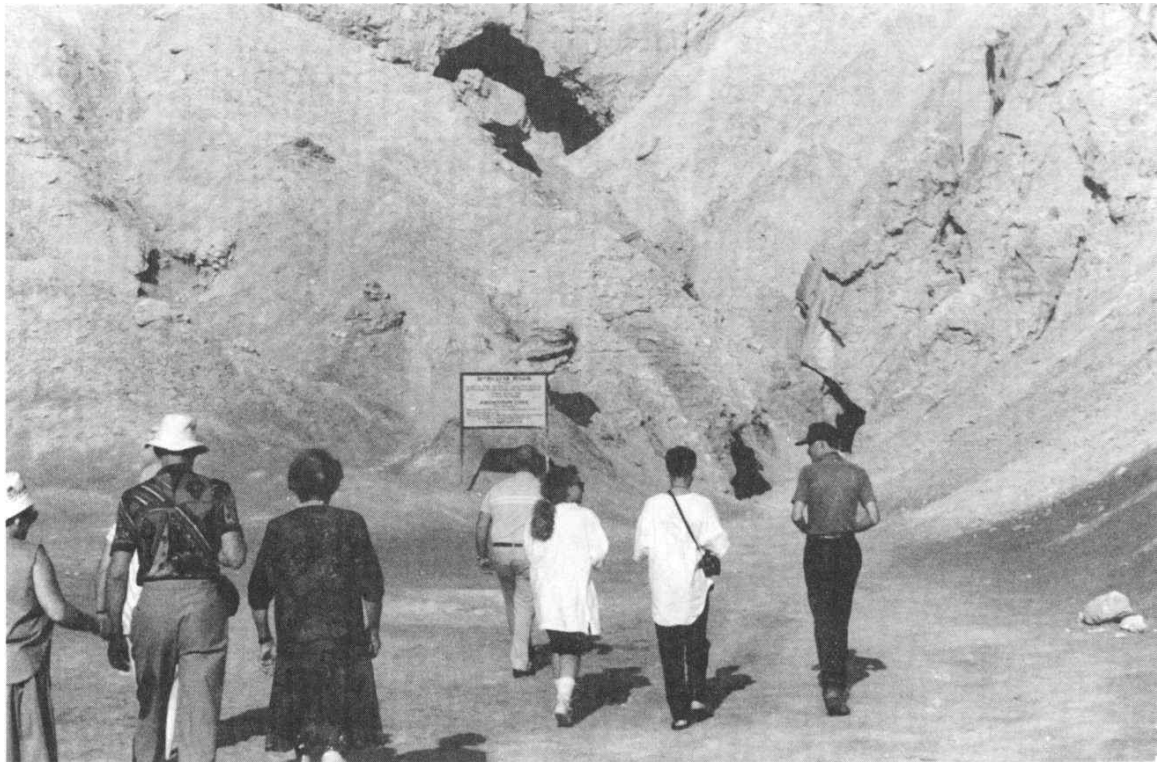
이 운하는 사해의 물을 사해 화학회사(Dead Sea Chemical Company)로 하여금 토사를 씻거나 기타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건설한 것이다. 그런데 물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이 운하가 사해의 북쪽과 남쪽 부분 사이의 지역을 가로질러 흐르지 않는다면, 두 부분 사이에는 문자 그대로 물이 없었을 것이다. 이 운하는 사해의 남쪽 가장자리의 서쪽에 위치한 사해 화학회사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이 지역 전체는 북쪽의 헬몬산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집트까지 이르는 Great Rift Valley에 속한다. 사해의 수면을 기준으로 하면 이 계곡은 지중해의 수면보다 1,300 피트가 낮고, 사해의 북쪽에서는 그 바닥이 또 1,300 피트나 깊다. 따라서 그 계곡을 “Great Rift Valley”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하다. 사해 바다 지역과 나란히, 지질학자들이 “단층”이라고 부르는 커다란 틈이 있는데, 거기서 지구의 진동이 자주 일어난다.

만약에 이 앞부분의 계곡에서 물이 완전히 물러간다면 중대한 발견이 이루어질 것이다. 북쪽 부분은 깊이가 약 1,300 피트이지만, 남쪽 부분은 15 피트 밖에 안된다.

침니(뜸새)동굴로 들어가기



이것이 놀라운 침니(뜸새) 동굴로, 양면이 암염(rock salt)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것은 고대의 동굴이므로, 아브라함 시대까지만 거슬러 가도 소금이 매우 풍부했다는 사실을 증거해 준다.

이 그룹의 여행자들은 그 유명한 침니 동굴(Cave of the Chimney)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 사해의 서쪽에 있는 이 부분이 하르 세돔(번역하면 소돔산이라는 의미)이라고 알려진 것은 놀라운 현상이다. 이 지역이 롯의 아내와 관련이 있다고는 꼬집어 말할 수 없지만, 이것과 같은 동굴들을 조사해 보면 성경의 기록이 이 지역의 지형과 일치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뜸새 동굴을 묘사하는 안내문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아루보타임 동굴 (틈새)

- 이 굴뚝같은 형태는 소금을 녹이는 물의 작용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 이것은 Sdom 지역의 동굴이 형성된 방법을 예시해 줍니다.
-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

(Sdom이라는 글자에서 영어의 반모음이 생략된 것이 흥미롭다.)

화학자가 암염을 조사하다



화학자 Walter Pike가 침니 동굴의 벽에서 암염의 일부를 깎아내고 있다. 그것은 정말로 암염이며, 그러한 소금의 양은 거의 믿을 만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이 사람은 호주 멜버른의 화학자 Walter Pike인데, 침니 동굴 내부에 있는 암염의 일부를 벗겨내고 있다. 전체 벽에 소금이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주머니칼로 그것을 벗겨내는 것은 간단한 문제이다.

결정질의 소금 퇴적물을 갖는 이 산은, 사해의 남쪽 끝의 서쪽 면에 해변을 따라 높이가 약 300 피트인 것이 약 5마일 길이로 뻗어있다. 고대 도시 소돔이 바로 그 근처에 있었다고 오랫동안 믿어져 왔기 때문에 그 구역을 전통적으로 Har Sedom(소돔산)이라 부른다.

침니 동굴은 매우 인상적이고 아름다워서 관광객의 매력을 끈다. 그것은 또한, 불과 역청이 하늘로부터 비 오듯 쏟아지는 현상을 전 지역에서 목격할 수 있었던 창세기 19장의 사건을 되새겨보려는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만약 사해바다 자체로부터 분출이 일어났다면 동쪽과 서쪽 둘 다 영향을 미쳤어야 한다. Har Sedom에 대량의 소금이 있다는 것은 분명 대단한 격변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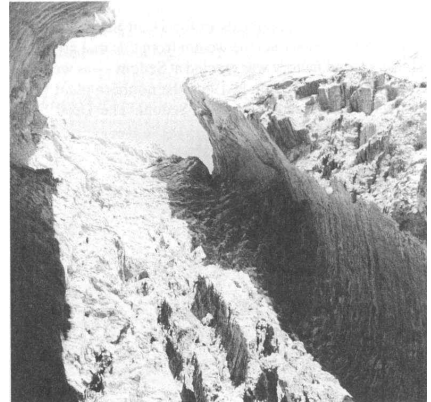
침니 동굴에서 밖으로 내다보기

모든 벽이 암염으로 둘러싸인 이 동굴 안에 있기만 해도 매우 인상적이다. 또한 치솟은 산들 저 너머의 푸른 하늘을 내다보는 것도 인상적이다. 이 모든 영역이 그 표면에 방대한 양의 암염을 담고 있다. 창세기 19장에 묘사된 멸망이 사해의 양쪽 면에 있는 전 지역에 일어났을 때, 그러한 환경에서는 하늘이 푸르지 않고 검다고 생각할 수 있다.

성경의 저자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관한 이 이야기의 사실성을 받아들였다: 창세기에서 그것을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신명기뿐만 아니라 아모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및 스바냐 같은 선지자가 인용하였다. 심지어 그 사실은 예레미야 애가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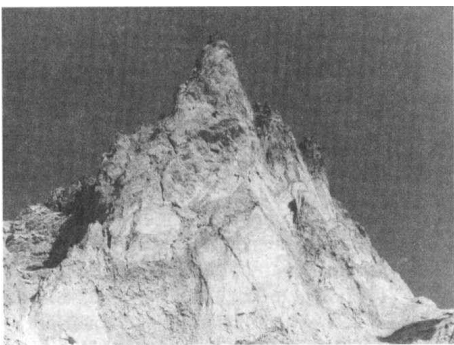
우리 주님 자신도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수 있다는 증거로 수차례나 그 사건을 언급하셨다(마10:15, 11:24, 눅10:12, 17:29).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베드로 및 유다도 그것을 언급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서는 영적인 죄의 도시를 소돔으로 언급하고 있다.



“침니 동굴”에서 밖으로 내다보기

침니 동굴에서 밖을 내다보면, 전망이 대단하다. 푸른 하늘과 함께 치솟은 소금산이 불쑥 튀어나온 것을 바라보면 경외심이 일어난다.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증명 없이!) 이것 혹은 다른 “기둥들” 중의 하나를 롯의 아내라고 제시한다. 그러한 기둥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암염 속에 여인이 갇힐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 지역에는 상당한 양의 암염을 포함하는 기둥이 많이 있으며, 직접 시행해 보면 알 수 있듯이, 실제로 바위에서 별 문제없이 소금을 긁어낼 수 있다.

롯의 아내의 사건은 문자 그대로 일어났으며, 그것은 또한 중요한 영적 교훈을 시사해 준다.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를 만나러 달려오시며(눅 15:20), 심판이 실행될 때까지 기다리신다(창 6:3, 13-14, 등등). 그러나, 그분의 자비를 거절하면 심판이 떨어진다 - 롯의 아내의 경우도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허락하신 시간을 넘어서 꾸물거리다가 그렇게 되었다. **참조**

롯의 아내

이 지역의 일부 사람들은 평소에 이 거대한 기둥을 “롯의 아내”라고 부른다. - 다른 기둥을 그렇게 부르는 것도 있다. 우리는 롯의 아내가 그것들 중 어느 하나의 속에도 들어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산은 매우 많은 양의 암염을 담고 있으며, 소금이 하늘에서 땅으로 쏟아진다면 롯의 아내가 문자적으로 그러한 소금 안에 갇힌다는 것이 참으로 가능하다. 폼페이에 살던 사람이 화산재를 뒤집어쓰는 것이 가능했다면, 소돔에서 도망치던 한 여인이 암염을 뒤집어썼다는 것도 매우 합리적이다.



낙원의 용 (DRAGONS IN PARADISE)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 큰 용이 내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 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 용에게 경배하며 ..." (요한계시록 12:3,9; 13:4).

이 세대의 공룡에 대한 열광은 영화 "쥬라기 공원(Jurassic Park)"의 6월 개봉과 더불어 최고점에 도달하고 있다. 전례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이른바 쥬라기로 불리는 기간 이래로 호박/amber 속에 보존된, 피를 빨아먹는 곤충으로부터 고대 공룡의 DNA를 추출해서 복제한 진짜 공룡으로 채워 넣은 현대 테마공원을 다룬다)를 볼 뿐만 아니라, 가게에서는 공룡 장난감과 책, 그리고 온갖 종류의 소품을 판매하고 있다. 진화(결국은 진화를 말하는 것이므로)에 대한 대부분의 이러한 선전은 아이들을 겨냥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이처럼 아주 오래된 시기로 추정되는 추한 괴물에 쉽게 매료되는 것 같다.

그 정도가 폭발적으로 증대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처럼 거의 숭배에 가까운 매료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현대의 진화론을 주도하는 진화론자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년기에 공룡에 관해 공부한 것을 통해 진화론으로 이끌렸는지 모른다. 예를 들어, 오늘날의 진화를 주도하는 대변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스티븐 제이 굴드(Stephen Jay Gould)는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여기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단지 또 다른 유행인가, 아니면 어떤 면에서 시대의 중요한 표적/sign인가? 사실상, 고대의 모든 국가도 이처럼 그들이 '용/dragon' 이라고 불렀던 공룡 같은 동물에 사로잡혔던 것 같다. 하나님에 의해 영감을 얻은 성경의 저자들도 용에 대해 썼다. 창조된 동물들에 대해 최초로 언급하고 있는 창세기 1:21절에는, "하나님이 큰 물고기/whales를 창조하시니" 라고 써여있는데, '큰 물고기/whales'에 대한 히브리어('tanniynim')는 20곳이 넘는 다른 구절에서 '용'으로 번역되어 있다. 특히 이사야 27:1 절을 보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런 종류의 바다용은 '리워야단' 으로 불렸다(또한 시편 74:14절과 104:26절을 보라). 하나님은 욥기 41:1-34절에서, **칼이나 창으로 뚫을 수 없는(7, 26-29절) 견고한 비늘(15-17절)이 있는 무시무시하고 불을 내뿜는(21절)** 괴물로 묘사했다. 하나님은 또한 **"그 꼬리치는 것이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으뜸으로 그것을 누가 능히 잡겠느냐"(17, 19, 24절)** 며 '베혜못' (욥기

40:15-24)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육지용을 설명했다.

다양한 다른 용들이 다른 종류의 서식지에 사는 것으로, 그리고 여러 크기로 묘사되어 있다(예를 들면, 이사야 34:13, 미가 1:8, 말라기 1:3). 이 예 중의 일부에서, ‘tanniyn’ 을 현대 번역에서 ‘자칼’로 표현했으나, 히브리어로는 자칼이 아니라 ‘용’이나 ‘괴물’을 의미한다.

용은 심지어 중세에 출판된 훌륭한 동물학 논문에도 기술되었다. 비록 용을 때때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말했을 지라도, 이 모든 고대 국가에서는 그것들을 인간들이 자주 마주친 실제 동물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브리태니카 백과사전*(1949년판)에 있는 용에 관한 내용도, 공룡을 "놀랍게도 용 같다"고 언급했다. 비록 그 저자는 용을 믿었던 고대인들이 공룡에 대해서는 ‘조금도 몰랐을’ 것이라고 추정했을 지라도 말이다. 진화론적 지질학자들은, 모든 공룡이 중생대 말엽인 대략 6500만 년 전 이후에 멸종되었다고 추정하고 있지만, 최초의 공룡 화석은 19세기 초가 되어서야 발견되었다.

어쨌든, 용과 같은 공룡은 한때 전 세계에 걸쳐 엄청나게 많은 수와 종류가 존재했었다고 한다. 커다란 공룡뼈 층은 북극해의 스피츠버겐/Spitzbergen으로부터 남국에서 약 400마일 떨어져 있는 남극 대륙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륙에서 발견되었다.

방대한 수의 공룡 발자취와 발자국 화석은 훨씬 더 놀랍다. *공룡 발자취와 흔적*이라는 심포지엄(D. D. Gillette와 M. G. Lockley 편집,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국, 1989, 454쪽) 문서에서는 전 세계에 걸친 수백 개의 공룡발자국 화석지를 상세히 보고했다. 그것들은 충적선상지 퇴적물, 범람원 퇴적물, 호수 퇴적물, 사구 같은 층, 삼각주(delta)와 해안선계(shoreline systems)에서 발견된다.

비록 아직 이 대격변의 종류에 대해서는 일치하지 않았지만, 최근의 많은 지질학자들은 공룡 시대가 어떤 종류의 지구적 대격변의 결과로 갑자기 끝나게 되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여기에 대해서는, 엄청난 화산 분출을 동반한 대홍수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세계의 기후를 아열대 기후로부터 현재 위도에 따라 변화하는 기후로 바꿔버렸다면, 전 세계에 걸친 광대한 공룡 묘지와 발자국화석을 잘 설명할 수 있다.

물론, 성경에서는 그러한 홍수가 수천 년 전에 일어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제는 창조론자가 되어, 공룡과 그것의 멸종을 포함하는 지구 역사의 현상에 대해 지질시대 체계보다 성경의 홍수가 훨씬 더 나은 설명을 제공한다고 확신하는 수천 명의 과학자들이 있다.

그것과 관련하여, 공룡이 홍수 이후 세상에서 한때 계속해서 살아남았다고 생각해 보라. 이것은 수세기에 걸쳐 전설적 이야기가 덧붙여졌으나, 동시에 많은 부분은 사실에 기초한 모든 용 이야기에 대해 완벽하게 설명할 것이다. 유물을 공부한 영국 학생인 빌 쿠퍼(Bill Cooper)는 고대 사람들이 용과

공룡을 마주친 내용을 담은 가장 인상적인 편집물을 출판했다 ("앵글로색슨과 다른 초기 기록의 살아있는 공룡" *Creation Ex Nihilo Technical Journal*, 6권, 1호, 1992, pp.49-66).

심지어 일부 공룡은 아직도 고립된 지역과 특히 세계의 대양과 깊은 호수에 살아남아 있을지도 모른다. 1977년 뉴질랜드 근처에서 잡아 올려진 유명한 사경룡 같은 동물(*Oceans* 잡지, 1977년 11월호, pp.56-59 참고)과, 원주민들이 수없이 설명하는 쿡고의 강우림의 내부 늪지에 사는 브론토 사우루스 같은 동물(*Science* 잡지, 1980년 11월호, pp.6,7 참고)을 깨끗이 잊어버리거나 무시해서는 안된다.

대부분의 창조론자들은 공룡이 태초로부터 사람과 공존했다가 중세에 멸종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홍수 전에는 모든 지역에서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광대한 무리의 공룡이 살았던 세상을 그려야만 한다. 대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확실히 공룡의 존재에 익숙했을 것이다.

따라서, 대홍수 이전 사람들에게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큰 용”**(요한계시록 12:9) 을 상기시키는 것이 지구 곳곳에 많이 있었다. 이 짐승은 홍수이전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의 완벽한 세상에 죄와 죽음을 가져온, 첫 번째 조상이 에덴동산에서 마주쳤던 뱀을 생각나게 했었을 것이다.

심지어 대홍수 후에도, 비록 전처럼 많은 무리가 보편적이진 않았지만, 공룡은 여전히 이따금씩 나타났다. 예를 들면, 선지자 욥이 사탄이 초래한 고통의 최고점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이 커다란 두 종류의 동물들 - 육지에 거주하는 베헤못/Behemoth과 대양에 거주하는 리위야단/Leviathan - 을 관찰하고, 비록 어떤 사람도 혼자서는 이 엄청난 파충류를 결코 정복할 수 없을지라도, 그것들을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므로, 하나님은 그것들을 쳐부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셨다. 것처럼, 하나님은 또한 과거에 낙원에서 뱀의 형체를 취한 타락한 천사, 즉 사탄도 만드셨으므로 사탄도 또한 정복할 수 있다.

그 옛 용이 낙원을 침입해서 하나님은 그를 지구로 추방하셨다. 그런데 사탄은 지구에서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항하도록 이끌고 있다. 사람이 경배해야 할 창조자는 결코 없었다는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온 천하를 피는”**(요한계시록 12:9) 자가 바로 사탄이다. 그는 자기가 왕이 되어서, 세상을 정말로 만드시고 유지하시는 자 대신에 자신을 경배하도록 설득하고자 한다.

그리고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이 바로 것처럼 할 때가 곧 다가오고 있다! 말세에 잠깐 동안 전 세계를 지배할 인본주의적 독재자에 관한 성경의 위대한 예언에서,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다니엘 11:37,38) 짐승이라고 불리는 한 사람에 대해 우리는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

“에게 경배하며” (요한계시록 13:3,4) 라는 말씀을 읽는다.

은 세상의 사람들이 “용을 경배 할 것이다!” 그리고 주의 깊게 본다면, 공룡에 너무나 마음이 끌려 있는 세상의 젊은이들을 관찰할 때, 이러한 다가오는 사건에 의해 전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벌써 볼 수 있다. 대신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한”(빌립보서 4:8)**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옛 뱀’을 상징하는 사납고 흉포한 동물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하겠다.

신약에 나오는 “낙원/paradise”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에서 직역한 것인데, 그것은 또한 히브리어인 “pardes”(“par-dace로 발음)에서 나온 것이다. 그것의 기본적인 의미는 ‘공원’이다. 따라서, 할리우드의 주도적인 ‘뉴 에이지’ 제작자가 ‘쥐라기 공원’을 되살아난 공룡으로 채우기로 선택했던 것은 전혀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 커다란 용이 다시 한번 상징적으로 낙원에 살고 있다.

정말로 사탄이 아직도 지구라는 행성 위에 살아서 잘 지내고 있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사탄 숭배/Satanism가 점점 세력을 키우고, 마법, 점성술, 심령술/spiritism, 견신론/theosophy과 다른 모든 신비 ‘과학’도 그러하다. 이것들은 진화적 범신론/pantheism이라는 오래된 속임수에 직접 기초를 두고 있다. 게다가, 많은 뉴 에이지 이교/cult와 심지어 비밀 신도회/fraternity 및 비밀결사 집회소/lodge 등이 있는데, 최소한 상위 등급의 사람들은 그들의 가장 높은 경배 대상으로, 실제로 루시퍼(이사야 14:12)를 경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그리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사야 14:13,14)**고 하는 그의 결심에 편승하는 것이다. 그들 모두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추구하는 자들로서, 세계 정부, 세계적인 경제 체계, 그리고 진화론적 인본주의 범신론/pantheism이라는 세계 종교를 꿈꾸고 있으며, 특히 성경적 기독교인 유일신 종교를 지구에서 사라지게 하려 한다.

세상은 빠르게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현대의 공룡에 대한 열광은 아마도 특히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에서 세상을 이끌어내게 되는 가장 어린 세대 사이에서 진화의 목표에 도달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인 요인으로 공헌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지배하고 계신다. 비록 베헤못이 창조된 모든 육지 동물 가운데 가장 강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은 자가 칼을 주었고”(욥 40:19)**, 그리고 리워야단이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 되더라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리워야단조차도 **“능히 하나님을 당할 수 없다”(욥 41:34,10)**고 말씀하셨다. 어느 날 하나님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실”(이사야 27:1)** 것이다. 마침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대적한 모든 천사와 모든 남녀와 더불어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 세 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요한계시록 20:10,15)**

그날에는 낙원에 더 이상 용이 없을 것이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요한계시록 21:27).** **참조**

계란 소고



이제 곧 부활절이 다가오네요.

부활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계란이라서 이번엔 계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지구는 자전을 합니다. 하루에 한바퀴씩.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왜 돌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창세기 1장의 말씀에 따르면 그 한바퀴씩의 돌을 통하여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밤은 달이 주관하고 낮은 해가 주관하고.....

밤이 되면 어둡게 되죠. 어두우면 어떡하라는 뜻일까요? 네. 잘 아시는군요. 어두우니까 이제 하던 일을 그만 두고 잠을 자라, 쉬어라,(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그 말일 겁니다. 다시 새벽이 되어 밝아지면? 물론이지요. 일어나라, 이제 부지런히 일을 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창조질서입니다. 겨울이 되어 밤이 길어지면 조금 더 자고, 여름에 해가 길어지면 조금 더 일을 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의 건강을 책임질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전기라는 걸(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자랑하지만) 발명해 가지고는 밤을 환하게 밝혀놓고 밤늦도록 형광등 아래에서 TV보랴, 컴퓨터 하랴.... 눈이 벌~정도록 있다가 아침에는 늦게 일어나서 허둥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아닐까요? 그러니 맨날 스트레스 쌓이고, 마음에 평화는 온데간데없고, 따라서 건강도 나빠지고.... 또 스트레스 쌓이고... 너무 극단적으로 말했나요?

각 직업군별로 수명을 조사한 보고서가 있는데 목사님(새벽에 대체로 일찍 일어나신다)을 비롯한 성직자들의 수명이 가장 길게 나타났거든요. 위의 이야기와 무관하지는 않겠죠?

대량생산이 지상목표가 되어 닭을 혹사하여 많은 계란을 낳게 하는 것도 바로 똑같은 원리를 적용시킨 거거든요. (시골에서 자란 제 경험으로는) 보통 닭은 하루에 한 개 정도의 알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걸 두개 이상 낳게 하려니까 닭에게 잠을 재우지 않고 닭장을 대낮같이 밝혀 놓습니다. 물론 케이지에 가두어 두고요. 그러니 닭이 어떡해요? 너무 밝아서 잠을 못 자니 모이나 먹는 거죠. 먹이를 먹으니 알은 많이 낳지만 제대로 운동도 못하고 잠도 못자니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병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병 걸리지 말라고 사람들은 모이 속에 항생제를 비롯한 많은 약을 듬뿍 넣을 수밖에 없겠죠? 그 계란을 먹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요즘 의약분업의 중요한 의미가 국민들이 항생제를 덜 먹게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 부활절에도 두레마을을 비롯한 유정란 생산농민단체와 일부 교단이 총회적 차원에서 유정란(수컷과 암컷이 어울려 살아야 얻을 수 있는 계란)을 부활절 계란으로 사용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죠. 광우병 문제도 그렇고, AIDS 문제도 그렇고,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어긋나게 사는 사람들의 이기심과 욕심에 하나님은 그런 질병으로 경고하시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참조**

본 전자소식지를 계속해서 받아 보기 원하시면, 저희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홈페이지(creation21.org)를 방문하셔서 **회원가입(무료)**하시고, 가입하실 때 **반드시 E-mail 주소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요청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홈페이지에서 이메일 부분을 누르시고, 요청사항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날마다 더욱 좋아지는 소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